

빨간 사과 대신 '초록·노란색 사과' 주목

여름철 기온 상승 등으로 껍질 색 관리 어려워...색 들임 필요없는 '썸머킹'·'골든볼' 품종 유통 활발

사과하면 으레 백설공주에 나오는 빨간 사과를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 시장에는 초록색, 노란색 품종도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름철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사과 품종 가운데 초록색, 노란색 사과를 소개했다. 사과 껍질은 사과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현하며 빨강색을 만든다. 그런데 최근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며 색들임(착색)이 지연되고 껍질 색이 선명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가에서는 사과색이 잘 들도록 열매를 아리저리 돌려주고, 열매에 그늘이 지지 않고 햇빛을 고루 받도록 잎과 가지도 제거한다. 사과의 안토시아닌은 반드시 빛이 닿아만 발현되기 때문이다.

색들임 노력이 덜 드는 사과 품종도 있다. 초여름에 나오는 국산 초록 사과로는 '썸머킹'이 대표적이다. '썸머킹'은 초록 사과로 잘 알려진 일본 품종 '쓰기루(아오리)'를 대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2010년 개발했다. 7월 중순 붉은색이 살짝 든 초록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관계자들이 기후변화로 주목받는 초록사과 썸머킹을 소개하고 있다.

색 상태로 맛이 들어(숙기) 따로 색들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노란 사과 품종으로는 '골든볼'이 있다. '골든볼'은 2017년 개발한 후 농가에 보급한 지 3~4년 된 최신 품종으로 8월 중순경 노란색 상태로 맛이 든다. '썸머킹'과 '골든볼'은 색들임 관

리가 필요 없어 노동력이 적게 들고 다른 품종보다 빨리 수확하므로 재배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썸머킹'은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쓰기루'보다 과즙이 풍부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우수하다. 전국적으로 177헥타르(ha) 정도에서 재배 중이며, 올해

약 300톤 이상이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든볼'은 새콤달콤하고 맛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여름 사과는 저장성이 떨어지지만 '골든볼'은 과육이 단단하고, 상온에서도 10일 이상 유통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여러 업체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아직 재배면적이 넓지 않아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소량 유통 중이다.

실제 두 품종을 비교해 본 유통업체 담당자는 "'썸머킹'은 여름 사과로 인지도가 높아서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고, 노란색의 새콤달콤한 '골든볼'은 가장 맛있는 조생종 사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사과색이 잘 들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며, 생산량도 줄어드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고온에서도 품질 좋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라고 전했다.



전북농협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익산군산축협은 익산군산축협 본점에서 폭우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구호물품 지원하는 나눔축산운동을 벌였다

폭우 피해농가에 '나눔축산운동'

전북농협-익산군산축협, 축산농가에 800만원 상당 축산물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은 25일 익산군산축협 본점에서 폭우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구호물품 지원하는 나눔축산운동을 벌였다.

이번 나눔운동은 폭우로 인한 축사 침수, 가축폐사 등의 피해를 입은 익산시, 군산시 관내 축산농가 90여명을 대상으로 80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전달하며 위로하고자 진행됐다. 이철완 전북농협 부본부장, 심재집 익산군산축협 조합장, 이상우 농협익산시지부장 등이 참석해 나눔축산활동을 함께 했다.

한편,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소비자, 농업인, 지역사회 소의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운동으로 1% 기부·나눔활동, 소의계층 봉사·후원활동, 경종농가 상생협력활동, 지역 사회 환경개선활동, 소비자 상호이해 증진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도, 농수산물 수출 위한 일본시장 공략 '박차'

제일한국농식품연합회 구매 시절단 초청 수출상담회... 10만 달러 수출계약 · 50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전북도가 도내 농수산물 기업들의 해외 수출 확대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복원하는 등 한·일 관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어 전북도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25일 일본 제

일한국농식품연합회(이하 한식련) 구매 시절단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일본에서 한국 농식품을 수입·유통하는 한식련의 핵심 회원사 9개사, 도내 28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한식련과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하는 등 그간 전북도의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이 밀집됨에 성과였다. 또 올 하반기 일본 현지에서 열릴 예정인 전북 농식품 판촉행사를 위해 경쟁력 있는 도내 농수산물들을 발굴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수출 상담회에서는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한식련과 10만 달러의 현장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도 올렸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한식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현지 유통매장에 도내 농수산식품의 입점 확대를 위한 정책적 관측행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이날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한식련 김규환 회장은 한식련 회원사들이 보급한 성금 700만 원을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배수장 85곳 안전진단·응급 복구 실시

향후 개보수사업 반영해 보강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25일 배수시설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응급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배수장 상시 정상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장비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배수장에 비상펌프 설치, 손상된 저수지 제방 복구, 이동식 사이판 설치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작업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배수장 85개소 대한 긴급점검 결과,

배수장 81개소는 정상가동 중이나 익산 청리배수장과 화산배수장은 펌프진동, 틈새유출 등 안전진단결과 펌프 기능저하 및 안전성 우려로 긴급 정비를 완료했고, 향후 개보수 사업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익산 산수배수장은 절연장치가 고장난 펌프 1대를 긴급 조치 중이며 이 달 안으로 완료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야간 시설물 점검, 배수장과 배수문 조작시 직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고 "현장중심 관리를 강화하고 상습 침수지역 등 취약지구는 더욱 세심히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이상기후로 많은 비와 강한 태풍 발생에 따라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습 침수 지역 현황과 비상대책 매뉴얼을 점검하는 등 장마철 재난대비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5일 배수시설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응급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익산 산수배수장 입출펌프 전동기를 보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금형제작지원 참여 희망업체 모집

경진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금형제작의 비용 부담 감소와 안정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시금형제작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지원업체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진행되는 지원사업으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혁신타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이후 양산 전 단계인 시금형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고무금형 △포장금형 △각종몰드 등 시금형 제작비용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시금형 제작지원사업은 군산에 있는 '전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시금형 제작 지원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tkr) 또는 전화 문의(공동체정책팀 ☎063-711-2076)로 확인할 수 있다.

정읍시에 2400만원 상당 학생 가방 기탁

NH농협 정읍시지부

농협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25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생용 가방 150개(24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NH농협은행정읍시지부 이재연 지부장이 참석했다.

전달된 가방은 농협재단에서 후원하는 학생용 가방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견 향상을 위하여 마련됐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자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